

죽음·지역사회·세대·젠더 정경에서 바라본 초고령화 일본

김희경

1. 담론이자 실재로서 일본의 인구 고령화 현상

2006년 만들어진 일본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Solid State Society』 편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된 2034년의 미래에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을 국가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암울하게 그려 낸다. 독거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국가의 솔리드 스테이트 시스템(Solid State System)은 사실상 가족이 없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독거노인들의 호적에 납치한 아이들을 입적시킨 후 자신들의 입맞대로 교육해 입맛에 맞는 인력을 생산하는 체제로 활용되고 있었다.

2023년 현재, 일본 사회는 정말 애니메이션에서 그려 낸 미래의 모습과 가까워져 가고 있을까? 2009년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일본 인구는 올해로 1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평균 수명은 2018년 기준 여성 87세(세계 2위), 남성 81세(세계 3위)이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김희경(金喜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보건교육 및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조교수다.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인구고령화라는 조건이 지역민들의 삶에 미치는 다층적 영향 및 다사사회(多死社會)로의 전환을 앞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생명과 죽음의 윤리적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Everyday Rehearsal of Death and the Dilemmas of Dying in Super-Ageing Japan」(2023),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지역의 다층적 국제화」(2020), 「우바스테아마에서 건강장수도시로: 초고령화 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인구정치」(2017), 「중앙-지방의 관계동학과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나가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2017) 등이 있다.

은 1975년 7.9%에서 2020년 29.1%로 높아졌다. 인구 비중이 큰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75세를 넘기는 해가 되면 병을 앓는 사람이 급증하고 사회보장비가 팽창해 의료 기관 및 노인 요양 시설이 부족해질 예정이다. 인구 전문가인 가와이 마사시(河合雅司)는 2040년에는 사망자가 급증해 화장장이 모자랄 것이라고 추정한다.¹

고령자 수가 정점을 맞는 2042년 즈음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아 가난해진 고령자들이 거리에 넘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된다. 특히, 후발 공업국으로서 서구를 모델로 근대화를 추진하였던 일본은 매우 짧은 시간에, 그리고 매우 급격하게 다산다사(多産多死)에서 다산소사(多産少死), 소산소사(少産少死)로 이행하는 인구 전환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강조된다.² 따라서 인구 팽창의 시기에 태어난 대규모 출생집단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고령자 비율을 지나치게 빠르게 크게 높여, 큰 폭의 인구감소를 가져오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일본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주로 ‘총인구의 감소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팽창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암울한 경제·인구학에서의 위기’라는 정치경제적 배경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맞이하게 될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총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일본뿐 아니라 다산다사형 인구구조에서 소산소사형 인구구조로 전환된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망도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존 캠벨은 “인구학적 변화가 현재 일본이 경험하는 문제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라고 되묻는다.³ 일본 정부를 포함하여 많은

1 가와이 마사시, 최미숙 옮김, 『미래 연표』, 한국경제신문사, 2018.

2 정현숙,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의 위기: 인구전환론의 관점에서 본 근대 150년간의 인구 변화」, 『비교일본학』 41권, 2017, 97~116쪽.

3 John C. Campbell, “Japan’s Aging Population: Perspectives of “Catastrophic Demography”,” *Journal of Asian Studies* 67(4), 2009, pp, 1400~1406.

연구기관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전망했지만, 그 보다는 실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감소하여 자본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 역시 어긋났다. 문제는 오히려 소비침체에서 발생했고, 자본축적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또한,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거품의 붕괴, 부실대출, 재정정책의 한계, 과도한 규제, 시대착오적인 구조 등) 가운데서 실제 인구 고령화가 미친 고유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지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본 사회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전망이 개입되기 마련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수치들은 현재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 현상을 ‘문제’ 또는 ‘위기’로 가정하는 입장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같은 특정한 인구문제로 인해 경제적·도덕적 차원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등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정치 담론으로서의 역할 역시 수행해 왔다. “위기의 인구학”(alarmist demography) 담론은 정부가 ‘위기’일 것이라 상상하는 미래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성원들의 현재를 관리하는 생명정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미래에 대한 문제이자 현재에 대한 문제이며, 실재이자 담론으로 작동한다.

본 특집에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을 정치·경제적 배경의 문제로 치부하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인구 고령화 현상이 일본인들의 삶에 미친 다면적 영향을 총체적으로 다뤄 보고자 한다. 인류학자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전 지구적 문화 흐름을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 파이낸스케이프(financescape), 이데오스케이프(ideoscape) 등과 같은 5가지 차원의 ‘스케이프’(scape)로 설정한 바 있다. 전 지구적 문화 흐름을 결정하는 고정적이고 초시간적인 차원

4 백영경,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1960년대 『사상계』 속의 정치적 상상과 자유주의적 통치의 한계」, 『여성문학연구』 2, 2013, 97~136쪽.

을 설정하기보다는, 아파두라이는 스케이프(-scape), 즉 정경(情景) 개념을 활용하여 정경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의 집합과 유동적 흐름을 그려 내고자 했다. 정경 개념에서 주목할 지점은 정치와 경제, 언어와 같은 실제적 차원의 요소들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황지어진 상상력 역시 정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⁵

본 특집에서는 아파두라이의 성찰을 일본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여, 총 다섯 편의 특집 논문과 두 편의 특집 기고글을 중심으로 초고령화 일본 사회에서의 죽음 정경, 지역사회 정경, 세대 정경, 젠더 정경을 그려 보았다. 고독사, 개호 살인, 안락사, 빈집, 폐허가 된 지역사회, 세대 간 갈등, 젠더 질서에 따른 돌봄의 문제는 초고령화 일본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대표적인 풍경이기 때문이다. 본 특집을 통해 우리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일본인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초고령화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갖는 중층적 의미와 젠더 질서의 변화를 탐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죽음 정경: 고독사 담론과 죽음을 둘러싼 음험한 상상

초고령화 일본을 떠올렸을 때 가장 쉽게 연상되는 연관어는 ‘고독사’, ‘무연사’, ‘개호 살인’, ‘안락사’와 같은 죽음과 관련된 말들이다. 오독립의 논문 「일본의 고독사 담론: 커뮤니티 담론의 전개와 일본 고령자복지의 방향성」 서두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방 안 가득 날아다니는 파리의 무리, 바닥을 뒤덮은 채 꿈틀대고 있는 무수한 구더기, 정돈되지 않은 채 온갖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 실내의 풍경, 그 가운데 쓰러져 있는 고령자의 주검”은 일본 사회에서 고독사를 묘사할 때 뒤따르는 익숙한 장면이자, 왜 일본 사회가

5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형 옮김,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고독사를 일종의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그렇지만, 오독립의 지적처럼 어떠한 죽음을 '고독사'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오독립은 '고독사는 문제'라는 특정한 방향에서 논의를 출발하기보다는 결국 '고독사라 불리는 사태'가 현대 일본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가'에 주목한다.

오독립에 따르면 일본의 고독사 현상이 이야기되는 방식은 크게 복지/제도 담론, 개인화 담론, 커뮤니티 담론이라는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이 3가지 담론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4년 '고독사 노인 추적조사 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이래,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가설주택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고독사 문제, 2000년대 이후 기타규슈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건과 단지의 고독사 문제를 통해 커뮤니티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단절이 고독사를 야기한다는 커뮤니티 담론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일본 정부에서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자원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일관하게 된다. 특히, 도키와다이아 단지는 고독사 문제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해결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일본 사회에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오독립은 도키와다이아 단지 사례의 경우 결국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커뮤니티를 재생하고자 하는 나카자와 단장과 그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집단이 존재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도키와다이아 사례는 고독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커뮤니티가 전제되어야 하는 커뮤니티 담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커뮤니티 재생을 통해서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 역시 지역 생활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통째로 넘겨' 결국 지역의 고령자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확대된 개인 책임론이라는 사실을 오독립의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지나의 논문 「일본 노년문학이 그리는 죽음의 풍경」 역시 개인과 가

죽에게 개호부담을 전가하는 일본형 복지정책이 노년문학에서 죽음에 대한 표상을 그려 내는 데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안지나는 사에 슈이치의 『노숙가족』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개호 살인과 안락사를 소재로 삼고 있다. 일본의 개호 소설은 주로 작가 본인이 개호자로서 개호 경험을 고백하는 사소설 경향이 강한 반면, 이 소설은 개호 살인과 안락사를 소설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이다.

소설 『노숙가족』은 요코하마의 한적한 뉴타운에서 일어난 개호 살인사건에서 시작한다. 피해자는 83세 모리모토 다쓰였고, 가해자로 체포된 사람은 남편인 87세 료사쿠였다. 하지만, 담당 형사 다시로는 사망한 피해자 다쓰의 표정이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것을 보고 처음부터 이 죽음이 피해자에게 부탁받은 촉탁살인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에 다시로 형사는 다쓰의 죽음을 둘러싼 가족들의 진술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이던 이 가족이 내심 노부부가 죽기를 바라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노부부가 가입했던 안락사를 장려하는 신종교 W·W·C(Welcome Wagon Company)의 영향 역시 주목한다. 노부부가 가입했던 신종교는 노부부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치매에 걸린 다쓰를 보살피던 아들 요시오와 며느리 리스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아들 요시오는 다쓰가 일관되게 죽음을 원한다고 굳게 믿고 어머니를 살해한다. 아들의 범인을 목격한 료사쿠는 자신이 범인이 되겠다고 자처한다. 치매에 걸린 부인을 살인한 87세의 할아버지에 대해 일본 법원과 사회 일반이 비난보다는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지나는 그 누구도 다쓰의 내면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다른 가족들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늙은 몸이라면 본인도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으며, 살인을 실행하고, 이를 은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안지나는 “노년과 노화를 혐오하는 장수사회” 일본의 면면을 포착하고, 그러한 혐오는 가족에게 부과된 가중된 개호 부담에서 파생됨을 주장한다.

앞서 오독립의 논문에서 확인했듯이 일본 정부는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

를 커뮤니티의 회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데, 커뮤니티의 중심에는 가족이 존재한다. 이처럼 초고령화 일본 사회에서 고독사 담론이나 개호 살인, 안락사와 같은 여러 형태의 죽음과 죽음의 표상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 같은 전통적 자산을 활용하는 일본식 근대 복지체제의 모순⁶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역사회 정경: 개발과 쇠퇴의 연쇄

이호상의 논문 「초고령사회 일본의 방치부동산 발생 원인과 과제: 소유자 불명 토지와 빈집 문제를 중심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된 지역사회가 당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인 소유자불명 토지 문제와 빈집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빈집 문제로 대표되는 방치부동산은 주택이나 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황폐해지고, 그 결과 인접한 토지나 주변 지역의 환경, 치안, 방화, 방재, 위생, 정경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흔히, 지역의 빈집과 방치부동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인구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빈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일본의 여러 지역을 답사하면서 이호상은 빈집 증가 문제가 단순히 인구 고령화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빈집 증가와 방치부동산 문제가 인구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거라면, 줄어든 수요에 비례해 공급 역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역 현장에서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규주택을 짓거나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호상은 빈집이나 공터의 증가를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문제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관련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제도적 문제들을 깊게

6 김희경, 「유령 고령자 사건과 한여름 밤의 시취(屍臭)」, 이현정·김태우 편,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164쪽.

들여다봐야 함을 지적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주택이나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일본의 부동산 정책하에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택지보다 저렴한 농지를 구매하거나 자신의 농지를 택지로 전용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고 임대 수입도 농지를 전용해서 새로운 주택을 지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절세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짓고 있어 상대적으로 질이 낮고 따라서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국 빈집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등기제도, 상속제도 등 관련 법 제도의 미비는 결과적으로 사후에 남겨진 부동산을 방치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등기제도, 상속제도 등 관련 법 제도의 미비는 결과적으로 사후에 남겨진 부동산을 방치되게 만들고 있다.

특집 기고 야마 요시유키의 글 「초고령사회 일본의 과제: 재해 부흥학의 관점에서 생각하다」에서도 이호상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사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야마 요시유키는 재해 이전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우, 재해가 닥치면 그야말로 소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며, 고령자는 재해뿐 아니라 피난소 생활 등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도시 재개발형 부흥 개념을 도입했다.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간토대진재에서부터 1995년 한신아와지대진재의 ‘창조적 부흥’으로 이어져 동일본대진재, 구마모토지진까지 계승되고 있다. 도시 재개발형 부흥은 겉으로 보면 재해지의 부흥을 이끄는 것 같지만, 개발로 인해 땅값이 오르고 원래의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주민들이 집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주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주택 재건 지원금을 받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 간의 격차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존의 인간관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호상의 논문과 야마 요시유키의 글을 통해 우리는 빈집과 방치 부동

산, 그리고 재해로 인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적하다 못해 으스스한 지역사회의 정경만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기간의 임대 소득을 위해 미래의 빈집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한편, 재해로 폐허가 된 땅에는 재개발로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등 초고령화 지역사회는 단순히 스러져 가는 것만이 아닌 쇠퇴와 부흥이 혼재되어 있는 다층적 삶의 정경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세대 정경: 세대 정치와 세대를 초월한 호모소셜 유대

세대 간 갈등은 인구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심화될 대표적인 문제로 제기되곤 한다. 김성조의 논문 「고령화 시대 일본의 세대 정치: 이슈 영역별 복지 태도 비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실버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로 표출된다. 실버 민주주의론은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함께 노인층의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고령자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고령자의 복지 및 조세 선호가 청년층에 비해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령자들은 연금과 의료 등 자신들에게 집중된 복지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 젊은 층은 교육, 아동·보육, 실업수당, 직업 교육 등 노동 시장 정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측면에서 세대 간 대립이 점차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이에 근간한다.

하지만 김성조는 실버 민주주의론이 근로 혹은 현역세대와 은퇴세대 간의 대립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세대 간 갈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계급에 의한 구별 및 갈등을 은폐할 위험이 있으며, 연령 간 선호 차이가 반드시 정치적 갈등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에 따른 정책 선호도의 차이가 반드시 현역세대 대 은퇴세대라는 구분에 따라 나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김성조는 2016년에 조사된 국제사회조사(ISSP)가

운데 정부의 역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금, 의료, 교육, 실업 등 4가지 이슈 영역에서 세대 간 복지 선호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 및 교육 영역에서는 연령 간 정책 선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0대와 그 밖의 연령 집단 간 선호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현역세대 대 은퇴세대 간 대결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갈등 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연금의 경우 50대를 경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세대 간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버 민주주의론이 주장한 것처럼 근로세대 대 은퇴세대 간 갈등 양상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근로세대 내에서도 실업급여 지급 액수나 지급 기간에 따라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엇갈리는 등 근로세대 내부에서도 복잡한 동향이 존재함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금 문제와 같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뿐 아니라 계급 간 갈등 문제를 세대 문제로 은폐시키는 정치담론을 비판적으로 독해할 필요를 제기한다.

김효진의 논문 「고령화사회 일본과 후조시의 호모소셜한 유대: 〈뿔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75세 할머니 유키와 17세 여고생 우라라의 보이즈러브(BL)를 통한 우정을 그린 여성만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현대 일본에서 오타쿠는 1970년대부터 본격 등장했다. 당시 10대였던 오타쿠들이 이제 60대에서 70대에 이르게 되고, 오타쿠계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상당수 역시 5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이르는 장년층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중년 이상의 오타쿠/후조시가 증가함에 따라 오타쿠와 후조시의 고령화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김효진은 〈뿔마루〉의 흥행이 단순히 중년 이상의 오타쿠/후조시가 〈뿔마루〉의 주인공 75세 유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유키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구입한 만화책이 BL만화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지만, 이내 만화책에 흠뻑 빠져 다음 권을 사러 다시 서점을 찾게 된다. 즉, 유키는 75세에 처음으로 BL만화를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년이 된 오타쿠/후조시를 반영하는 캐릭터가 아니다. 그럼에도 <뒤틀마루>가 많은 오타쿠/후조시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키와 우리라를 통해 독자들은 오타쿠·후조시로 느꼈던 설렘과 행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효진은 58세의 나이차를 뛰어넘는 유키와 우리라가 보여주는 유대의 핵심에는 BL을 통해 표현되고 충족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키가 BL에 빠져드는 이유는 우리라와 마찬가지로 BL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BL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재현하는 매체가 된다. 독자들이 BL 작품을 함께 읽고 감상을 공유하는 기쁨은 BL 작가에게 전달되고, 작가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거대한 사랑의 연쇄를 완성하게 된다.

김성조의 논문과 김효진의 논문을 통해 우리는 초고령화 일본 사회에서 발견되는 세대의 정경을 단순히 세대 간 적대 혹은 세대 간 유대로 단순화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치·경제적 맥락과 이해관계에 따라 세대 내 복잡한 요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 및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상이한 세대 간 접촉은 세대를 뛰어넘는 호모소셜한 연쇄와 유대에 대한 상상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초고령화 일본 사회에서 세대 정경은 정치와 경제, 욕망, 섹슈얼리티, 상상력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 및 배열을 통해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젠더 정경: 생존자이자 변혁 주체로서 노인 당사자

특집 기고로 선보인 야마 요시유키와 지은숙의 글은 사회의 고령화와 개인의 노쇠가 맞물리는 초고령화 일본 사회에서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젠더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우선, 야마 요시유키의 글 「초고령사회 일본의 과제: 재해 부흥학의 관점에

서 생각하다」를 살펴보자. 야마 요시유키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우 재해를 계기로 소멸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지역사회 내에서도 고령자가 가장 큰 피해를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인구 고령화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재해 문제와 함께 바라볼 필요를 제기한다.

자연재해와 인구 고령화를 복합재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고령자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이자 ‘사전 부흥’의 주체로 다변화한다. ‘사전 부흥’이란 야마 요시유키가 제안한 개념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여 도시계획이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거나 재해 발생 후 부흥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지식, 정보, 인재 등을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다.

야마 요시유키가 장기 밀착형 필드워크를 실시하고 있는 도쿠시마현의 히가시미요시초 산간부 마을에서는 인형극용 농촌 무대를 보수하여 인형극 부활 공연과 지역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지역사회에서 여는 예술제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제를 통해 교류 인구를 늘려 과소화가 진행 중인 마을을 살리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과소화에 따른 마을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또한, 야마 요시유키가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모임인 철학 카페는 평생을 ‘회사인간’으로 살면서 지역에 접촉할 기회가 적었던 고학력 남성 고령자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철학 카페 참가자들은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고 더 나아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역 부흥의 주체로 변화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집 기고글인 지은숙의 「장수사회의 불안과 ‘귀여운 할머니’에 맞선 40년: 고령사회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에서는 <더 나은 고령사회를 위한 여성의 모임>(Women’s Association for a Better Aging Society, 이하 WABAS로 표기)과 히구치 게이코 이사장을 중심으로 초고령화사회에서 ‘귀여운 할머니 담론’에 맞선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실천되었는

지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에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주로 길어진 노후와 소득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었고, 이에 따라 고령화 문제는 주로 생계부양자인 남성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관점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는 육체적인 취약성의 문제나 빈곤한 고령자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경제적 취약성, 그리고 여성들의 노인 돌봄 부담의 문제와 같은 현실적 고려가 간과되어 있었다. ‘귀여운 할머니 담론’은 육체적·경제적 취약성과 돌봄 부담으로 인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잠재우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나이가 들어 결국 누군가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여성 노인들은 결국 여성 가족원, 특히 며느리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귀여운 할머니’가 되는 것 말고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이에 히구치 게이코는 ‘며느리를 개호지옥에서 구출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983년 <더 나은 고령화사회를 위한 여성의 모임>을 설립했고, 정부에 대한 제언을 반복함으로써 2000년 개호보험제도 설립에 크게 기여했다. 개호보험제도가 출범한 이후 히구치 게이코를 이사장으로 NPO법인 WABAS를 정비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 WABAS 전국 대회의 주제로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은가’를 논의하기도 했다. 1990년대 ‘귀여운 할머니’라는 장르에 봄을 일으킨 킨상·긴상 봄을 통해 재현되는 노년의 이미지는 무해한 웃음과 유머로 장수사회의 희망의 아이콘을 제공해 주기도 했지만, 평범한 사람이 추구하기에는 쉽지 않은 노후의 삶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히구치 게이코 자신은 자립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한 후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립의 방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귀여운 할머니’로서의 삶이 아닌 다른 노후의 삶을 시도하고 있었다. 즉, 돌봄을 받는 약자로서 돌봄을 제공해 주는 강자에게 순종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다양한 기능 저하를 인정하되, 남아 있는 능력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애 현역으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삶인 것이다. 그렇지만 지은숙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함을 생애 마

지막까지 극복의 대상으로 상징하는 히구치 게이코의 자세 역시 인간의 존재론적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 준다고 지적하며 취약함을 전제로 새로운 사회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움직임들을 소개한다.

야마 요시유키와 지은숙의 글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고령화가 개인의 노쇠함과 맞물리면서 사회운동의 지형과 젠더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회사인간’ 혹은 ‘돌봄자산’과 같이 사회에서 부여받은 젠더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일평생 쌓아 온 정체성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개인에게는 위기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핵심을 ‘자립’으로 구성하는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자각하고 인간과 지역사회의 취약함을 바탕으로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추구하는 새로운 실천들을 도모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기 또는 기회로서의 인구 고령화 담론을 넘어서

지금까지 일본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주로 ‘총인구의 감소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팽창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암울한 경제적·인구학적 위기’로 다뤄져 왔다. 혹은 그 반대로 인구 고령화 현상을 ‘비즈니스적 기회’로 바라보는 입장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본 특집에서 시도했듯이 일본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인구 고령화 현상은 단순히 노인들이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죽음 정경을 통해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몸과 많은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나이 듦의 의미나 죽음에 대한 윤리, 가치의식, 그리고 자신의 노후와 죽음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 정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초고령화와 재해의 발생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단기간의 임대 소득을 추구하는 미래의 빈집들과 부흥의 열망 역시 여전히 꿈틀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대 정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대 관계는 세대를 구성하는 복잡한 요소들과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대 간 접촉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호모소셜한 연쇄와 유대에 대한 상상력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젠더 정경 분석을 통해 노화의 진전에 따라 젠더 아이덴티티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되려 개인의 ‘자립’을 전제로 하는 근대적 인간다움(personhood)에 대한 비판 및 대안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특집은 일본의 인구 고령화가 실질적으로 일본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가 야기할 정치·경제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담론, 역사, 상상의 궤적에 대한 세밀한 탐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현재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인구 고령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일본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라 일컬어지는 문제는 사실상 경제적 근대화가 추진되는 속도에 비해 정치·사회·문화적 근대화가 추진되는 속도가 뒤쳐진 결과 나타나는 일본식 근대화의 폐해와 접합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고령자를 단순히 ‘사회적 문제’이자 ‘피해자’가 아닌 근대화가 야기한 문제를 증명해 주는 생존자이자 근대적 삶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탐색하는 변혁의 주체이자 초고령화 일본의 삶의 정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 내는 주체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충실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본 특집이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인구 고령화가 빚어 낸 다층적 삶의 정경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